

## 총선 후보등록 D-1...여야 극한 대립에 민생은 뒷전

광주·전남 아직도 경선 후유증 '막말' 인사 처리 문제 진통 여전 대립 넘어 미래 비전 제시해야

21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10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약과 미래비전 보다는 상대 정당 공격을 통한 극한 대립만 이어가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이 끝났지만, 일부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선거 이후에도 경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표밭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각종 약제가 터져나오면서 정작 쟁거야 할 민생과 민심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천 갈등'이 여전히 양당의 불씨로 남아있고, 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당내 '막말 인사' 처리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20여일 앞두고 '수사 중 출국'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기자 회갈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문제가 최대 약재로 떠오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에 대한 거취 문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천 갈등, 계파 갈등'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처럼 거대 정당이 각종 약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소수 정당은 '새로운 정치 대안'을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네거티브 등의 극한 대립 보다는 추락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정책 공약과 정치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주요 일정은 본격 시작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3월 19~23	선거인명부 작성
21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22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27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4월 5	선거일 (오전 6시~오후 6시)

연말뉴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오는 29일 확정된다.

이 기간 중 거소·선상투표 신고와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가 작성되며,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 총선 후보자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기탁금 1500만원과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27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후 각 지역에 붙이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입성'을 노린 후보들은 총선 전날까지 13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투표일정은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된다. 선거인명부는 29일 확정된다.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진행되며, 선상투표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인 4월10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조사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지게 된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예비후보들이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 회갈 테러'와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해임과 '수사 중 출국' 논란을 빚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국힘 비례, 현역 없는 호남 우선 배려해야

국민의미래 20번 내 순천출신 인요한 등 3명 뿐...순번 재조정 요구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고 후 '호남 출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내 호남 인사들이 적다는 이유로 광주지역 책임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전북 지역구 후보들은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국민의미래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는 20번 내 순천 출신의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3명의 호남 인사가 포함됐다.

비례대표 호남 소외 논란으로 인해 그동안 '호남 구애'에 공들여왔던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호남 배려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는 21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비례대표 순번이 재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직자와 당원 30여명은 1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4년 전 우리 광주 책임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으로 모 든 것을 걸었다"며 "광주에서 활동한 정치인이 광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광주 발전을 이루고

광주 정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29 제18조(심층심사) 3항에는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작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 순위 20위 이내인 4분의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의 대표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 출신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라 20번 내인 25%가 들어가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500명 책임당원이 전부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면서 "이제 책임당원을 1만3000명까지 확보하는 등 세 확장에 나섰지만, 이번(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으로 광주는 희망이 사라졌다. 총선에 대한 동력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호남을 배제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윤'(진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호남이라는 협지에서 보수의 가치를 들고 헌신해 온 호남 기반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김기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비례대표리는 제도 자체가 자의적인 영역이 크고 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취약지역을 위해 20인권 내 4분의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추천한다'는 신설 규정이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역대 최고의 당세를 이끈 전 전남도당 위원장과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22번과 24번으로 배치하고 이를 '충분한 배려'라고 말하는 공천 모습은 호남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비례 24번에 배정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배려가 없다"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비례대표 순번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역 내에서는 '호남 출대'에 따른 불만과 탈당자 등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광주 첨단 일본 풍 가게 앞 '신문' 설치 ▶6면
- 전남의 혈맥을 새로 잇다 ▶11면
- KIA 나성범 또 부상...개막전 못 뚫다 ▶18면

## 광주광역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보장기간**

2024. 1. 20. ~ 2025. 1. 19. (1년)  
※ 청구기한 3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

**보험금 지급방식**

상해발생 ○ 보험사 청구 ○  
보상여부 검토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금 상담 및 청구**

• 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 070-4693-1655  
070-8892-3786  
• 서류접수(FAX)  
☎ 070-4758-8556

**문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

광주광역시 GWANGJU CITY